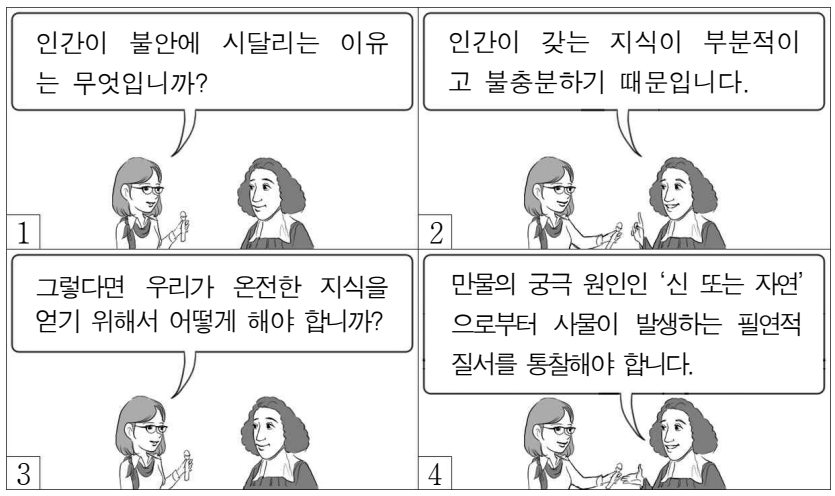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1. 그림은 어느 근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이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감각적인 욕구에 따르면서 살아간다.
② 우연히 생기는 감정의 변화를 수용하며 살아간다.
③ 이성에 의해 사물의 인과 관계를 인식하며 살아간다.
④ 사회를 벗어나 자연에서 무지(無知)의 삶을 살아간다.
⑤ 인격신(人格神)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이유는 이익에 있다. 정부는 다리를 놓고, 항구를 만들며, 운하를 건설하고, 군대를 훈련시킴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 시민에게 정치적 의무가 생겨난다. 만약 정부가 주는 이익이 사라진다면 시민의 정치적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① 정치 공동체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②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③ 인간이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자연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④ 사회 계약에서 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⑤ 신의 절대적 명령을 받은 군주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 : 사람이 네 가지 선의 단서[四端]를 모두 확충할 수 있으면 천하를 보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게 된다.
> 을 : 사람이 자신의 본성을 따르면 서로 다투고 빼앗게 되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 결국 난폭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① 갑은 예(禮)를 통해 악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갑은 본성을 억제할수록 이상적 인간에 가까워진다고 본다.
③ 을은 사양(辭讓)하는 마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본다.
④ 을은 보통 사람과 성인(聖人)의 본성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누구나 수양하면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좋은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 을 : 좋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최선의 것을 알면서도 그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
> 〈문제 상황〉
>
> 고등학생 A는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데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구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고민 중이다.

① 갑 : 실천 의지를 키우기 위해 절약을 생활화해야 하네.
② 갑 : 절약해야 한다는 의무 의식에 무조건 따라야 하네.
③ 을 :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소비를 습관화해야 하네.
④ 을 : 절약이 옳은 것임을 알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네.
⑤ 갑, 을 : 모든 소비 욕구를 없애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네.

5. (가)의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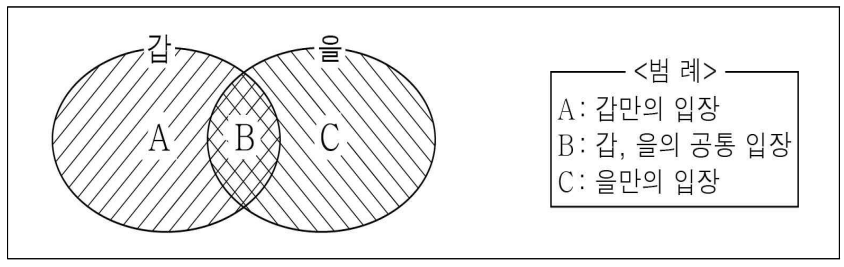
(가)	갑 : 내 안에는 신령한 마음이 있고 밖에는 기운의 작용이 있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 이 신령한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므로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듯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 을 : 상제(上帝)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한(恨)을 풀어주고 상생(相生)의 도를 세워 선경(仙境)을 열어 놓으신 후 인사(人事)를 조화시켰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였다.
(나)	_____㉠_____. 그러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갑	을
①	하느님[天主]을 잘 섬겨라	일원상의 진리를 믿어라
②	선정[定]과 지혜를 닦아라	신세를 지면 반드시 보답하라
③	하느님[天主]을 잘 섬겨라	은혜를 갚고 원한을 풀어라
④	선정[定]과 지혜를 닦아라	자기 안의 하느님을 모셔라
⑤	신세를 지면 반드시 보답하라	일원상의 진리를 믿어라

[6～7]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갑 :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방탕한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 을 :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이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6.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① A : 유용성의 원리가 도덕의 원리임을 알아야 한다.
② A : 행복한 삶이 도덕적 삶과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
③ B : 행복해지기 위해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④ B :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⑤ C :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위의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경험적 원리는 도덕 법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도덕 법칙이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서 나온다면, 이성적 존재들에게 도덕 법칙이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성과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필연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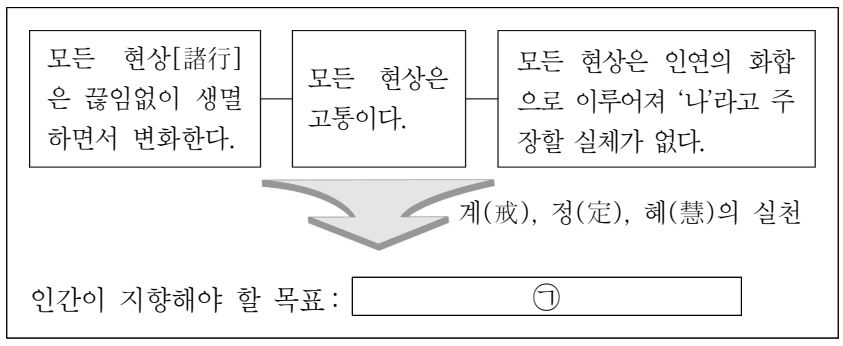
①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임을 인정해야 한다.
② 쾌락을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③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④ 쾌락에 대한 욕구를 도덕의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이 조화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상적 인간인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하루라도 사욕(私欲)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모두 인(仁)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인의 실현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 ○ (㉠)은/는 의리(義理)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 ○ (㉠)은/는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① 혁명을 통해 군주를 물러나게 한 통치자이다.
② 혈통에 따라 지위와 재산을 물려받은 귀족이다.
③ 보수를 받은 만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이다.
④ 덕의 실천으로 이기적 본성을 극복한 인격자이다.
⑤ 인격을 수양하여 덕을 갖추게 된 도덕적 존재이다.

9. 그림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주장을 도식화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올바른 지혜를 통해 고통이 소멸된 경지에 도달한다.
② 탐욕[貪]과 성냄[瞋]을 제거하여 신선(神仙)이 된다.
③ 타고난 도덕적 실천 능력을 확충한 대인(大人)이 된다.
④ 지속적 수행을 통하여 자신을 잊고 자연과 하나가 된다.
⑤ 올바른 길[正道]을 닦아 제물(齊物)의 경지에서 노닌다.

1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u>않은</u>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갑 :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이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개인은 가족, 도시, 민족으로부터 자산과 부채, 기대와 책무 등을 물려받는다. 이것들이 각 개인의 도덕적 출발점이 된다.
> 을 :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꾸려 나갈 자유를 가진다. 우리가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갑은 ㉠ <u>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u>, ㉡ <u>좋은 삶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삶이라고 주장하였다</u>. 을은 ㉢ <u>개인적 선의 실현을 위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u>, ㉣ <u>개인의 자유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u>. 한편, 갑, 을은 모두 ㉤ <u>개인적 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u>.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남성에 비해 여성은 도덕 문제를 생각할 때 책임과 배려를 중시한다. 우리가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인간관계와 책임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사람의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의 유대 관계가 깨졌기 때문임도 깨닫게 된다. 인간의 도덕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 보 기 >

ㄱ. 도덕성의 요소로 책임보다 권리를 중시해야 한다.
ㄴ. 도덕적 특성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ㄷ. 도덕 판단을 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ㄹ. 도덕성을 평가하는 최고 원리를 정의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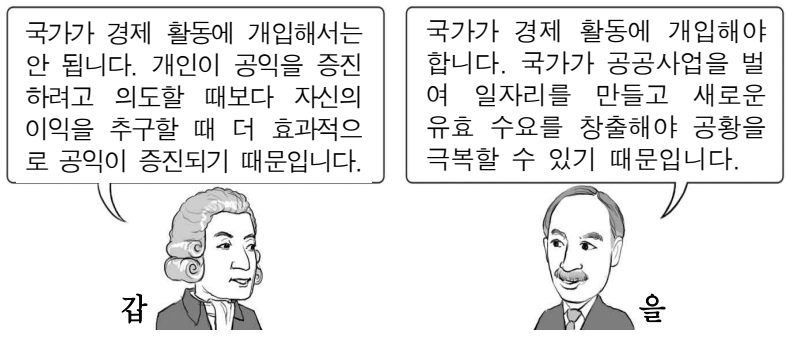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극한 덕(德)이 있던 세상에서는 인간이 새나 짐승과 함께 어울려 살고 만물과 무리지어 함께 살았다. 다 같이 무지(無知)하여 덕에서 멀어지지 않았고, 다 같이 욕망이 없어 소박하였다. 이런 소박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본성이 보존되었다. 그러나 성인(聖人)이 나타나 애써 어짊[仁]과 의로움[義]을 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의심을 갖게 되었다.

① 가치의 측면에서 만물이 서로 평등함을 인정해야 한다.
② 인위(人爲)를 통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
③ 무위(無爲)의 실천으로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④ 인의(仁義)의 덕목을 실천하여 인격을 완성시켜야 한다.
⑤ 인간의 관점에서 사물의 상대적인 우열을 판단해야 한다.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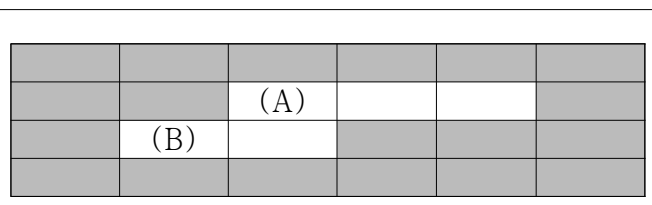
① 갑 : 국가는 계획적으로 경제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② 갑 : 개인은 이타심을 바탕으로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③ 을 : 평등한 사회를 위해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
④ 을 :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⑤ 갑, 을 :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14. 갑은 중국 사상가, 을과 병은 한국 사상가이다. 갑은 부정, 을과 병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중생은 스스로 미혹하여 자기의 본래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의 본래 성품을 곧바로 깨달으면[頓悟] 부처가 될 수 있다.
> 을 : 곧바로 깨달은 뒤에도, 늘 안으로 관찰하여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버리고 또 버려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
> 병 : 교(敎)를 배우는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밖에 있는 것을 구함이 많고, 선(禪)을 익히는 사람은 밖을 잊고 안을 밝히기를 좋아한다. 그 둘 다 한편으로 치우친 것이다.

①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삼독(三毒)을 제거해야 하는가?
② 타고난 불성(佛性)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아야 하는가?
③ 깨달음을 얻기 위해 교학(敎學)과 선(禪) 수행이 필요한가?
④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하는가?
⑤ 위로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아래로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가?

1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라. 외적인 일로 네가 고통을 받는다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그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너의 판단이다. 세상에 일어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이나 인간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나)	 [가로 열쇠] (A) : 인간과 세계를 이(理)와 기(氣)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성리학의 이론 (B) : 인간의 성품(性品) 예) 성선설은 ○○이 선하다고 보는 학설이다. [세로 열쇠] (A) : …… 개념

①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가장 적절한 상태이다.
② 인격신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③ 고통의 제거를 통해 도달되는 것으로 인간 삶의 목적이다.
④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⑤ 신과 자연, 인간을 관통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16. 다음은 '사상가 맞추기 게임'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힌트	그리스도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자 한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두 번째 힌트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힌트	㉠ 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힌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신학대전』을 저술하였습니다.

① 이성은 신앙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②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③ 영원법은 이성의 명령인 자연법에 근거한다
④ 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가 없다
⑤ 직업적 성공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17.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사람의 마음이 발(發)한 것은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그 위에 탄 것이다. 기는 유위(有爲)이고 이는 무위(無爲)이기 때문이다. 칠정(七情)은 사단(四端)을 겸할 수 있으나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 사상가가 (㉠)고 생각한다.

① 사단과 칠정이 생겨나는 근원은 같음을 간과하였다
② 선행의 원인이 기질의 치우침에 있음을 간과하였다
③ 사단 안에 모든 감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하였다
④ 순선한 사덕이 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⑤ 사단을 확충함으로써만 사덕이 형성됨을 간과하였다

18. 다음 원칙을 제시한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어떤 것을 최초의 사유 재산으로 삼았다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
> ○ 교환, 증여, 상속 등에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 결과로 발생한 소유는 정당하다.
> ○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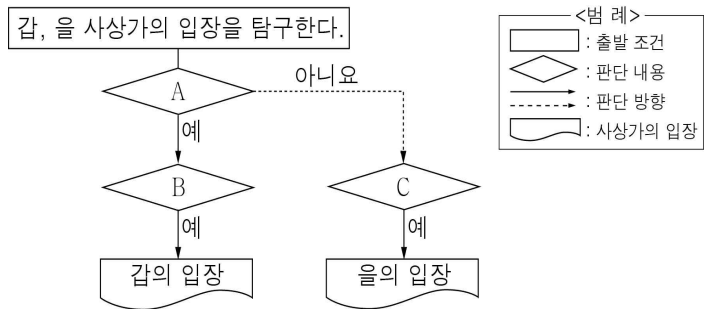
ㄱ.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ㄴ. 사회의 각 영역에 따라 정의의 원칙이 달라진다.
ㄷ. 복지를 위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부당하다.
ㄹ.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면 경제적 불평등이 사라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 갑 : 뜻을 정성스럽게[誠意] 하고자 하면 먼저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 사물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으면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게 되고 앎도 극진해질 수 없다.
> 을 :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면 사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지(良知)를 실현해야 한다. 양지가 온전히 발휘되면 모든 일이 바르게 된다.

(나)



① A :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없애야 하는가?
② B : 앎의 대상인 이치[理]는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가?
③ B : 사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④ C : 이론적인 학습 과정이 없어도 도덕성이 구현될 수 있는가?
⑤ C : 아는 것[知]과 행하는 것[行] 사이에는 선후가 존재하는가?

20.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사람이 온전한 자기 자신, 개별적인 인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엄청난 긴장과 책임을 떠맡고,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
> 을 :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사람은 어떤 정해진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존하기 때문이다.

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가?
②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의 관습에 따라야 하는가?
③ 종교 생활을 통해 죽음의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가?
④ 참된 실존을 찾기 위해 한계상황을 회피해야 하는가?
⑤ 주어진 삶의 목적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